

#연락트송년회



# '술집 대신 집술' 대세...족발·치킨에 '화상 건배'

### 코로나가 바꾼 송년·신년회

※. 광주시 동구에 사는 정하준(40·가명)씨는 매년 2차례(4월·11월) 정기적인 고교 동창 모임을 가져왔다. 올해의 경우 정씨와 친구들은 코로나19 여파에 상반기 모임을 취소했고 하반기 모임도 잠정 연기했다. 정씨 등은 한 해가 다 가도록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SNS단체대화방에서 열린 회의를 거쳐 내년 송년 모임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20년이 넘도록 우정을 쌓아왔지만 서로의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각자 자신의 가족사진을 담은 연하장을 주고 받자는 친구 의견을 따라 지난 20일까지 모두 발송하기로 했다. 정씨도 1년 넘게 만나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에다 가족을 소개하는 마음을 담아 가족사진을 배경으로 한 연하장을 제작, 친구들 20여 명에게 보냈다.

모임 자체하고 '랜선 동창회' 열어 가족사진 담은 연하장 안부 전해 슬기로운 집콕 생활 속 조용한 연말 지자체들 해냄이·해맞이 행사 취소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된 일상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면 송년회 참석에 바빴던 시민들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변화된 연말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20~30대는 첨단 기능에 능숙한 점을 활용, 자택에서 족발·피자 등 안주와 술을 준비해 놓고 화상회의 앱을 통해 건배를 외치는 모습이 눈에 띈다. 40대 사이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연하장에 담아 주고받는 '옛스런' 송년회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직장인 김현우(31·광주시 서구)씨는 지난 주말, 친구들과 '비대면송년회'를 했다. 애초 거창한 송년회를 준비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평소 친구들과 자주 찾던 호프집이 밤 10시면 문을 닫는데다, 서울살이 중인 고교동창이 광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면서다. 김씨는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배달 어플로 주문한 치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친구 3명과 줌(Zoom) 앱으로 SNS에서 만나 송년회를 가졌다. 김씨는 "줌 앱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친구의 제안으로 비대면 송년회를 계획하게 됐다"며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3시간은 금방 지나가더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서비스(SNS)에도 '랜선송년회', '비대면송년회', '연락트송년회' 관련 게시물이 500개 이상 넘쳐난다.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화상회의 앱을 통해 지인들과 비대면 송년회를 보내는 모습과 지인들이 얼굴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캡처해 게시물을 올리는 게 일종의 '송년 문화'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대면 만남을 잡는 데 활용됐던 직장인들의 단체

대화방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기업들의 송년회, 신년회도 모두 취소되면서 연말 들쭉거리는 풍경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한 기업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직원들끼리 갖는 소모임이나 회사 자리가 사라지면서 한데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송년회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연말 지자체마다 마련하는 해냄이, 해맞이 축제도 취소됐다. 전남지역 명소에서 해마다 볼 수 있었던 해냄이·해맞이 행사도 올해는 전면 취소됐고 해냄이·해맞이 명소인 완도타워를 폐쇄할 예정이다. 무안군도 삼향읍 봉수산, 해제면 도리포, 남남면 영해공원에서 매년 해냄이·해맞이 행사를 열어왔지만 모두 취소하고 삼향을 남약중앙공원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의 점등행사도 열지 않기로 했으며 고흥군은 내년 1월1일 열 계획이었던 '남월 새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법원 '코로나 휴정'...내년 1월 11일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하면서 광주지·고법도 내년 1월 11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21일 광주지·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동계 휴정기 운영 기준에 따라 재판 기일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대상은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가정법원, 관내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등이다.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원 직원들은 이 기간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하도록 했다. 애초 법원 동계 휴정기는 28일부터 1월 8일까지였지만 연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또다시 전국 법원에 일괄적으로 휴정을 권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스콜존 사고 이전 없기를" 세 남매 가족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로 2살 어린이가 숨진 광주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콜존)에서 20일 사고 예방 대책으로 횡단보도 사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구하라 재산, 친부-친모 6 대 4 분할

홀로 양육 아버지 기여분 인정 법원이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남해광)는 최근 구씨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정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노중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다면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는 점을 들어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씨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측은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키웠고 친모가 구하라 씨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친모 도움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을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단순히 양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보호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친부가 양육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씨를 특별히 양육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환자에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해 일부 책임"

법원 "전남대병원, 1000만원 지급" 병원이 수술을 앞둔 환자가 아닌, 동생에게 수술 후유증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수술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위자료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남편과 딸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동맥관 개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경련 증세를 보여 뇌CT를 촬영한 결과, '무산소성 뇌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A씨 가족 등은 수술 과정에서 대동맥 바리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들어 다른 수술법을 검토했어야 했고 수술 과정의 위험성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병원측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 의료진의 수술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과실

로 A씨 뇌손상에 따른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병원 의료진이 의료행위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A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 증상, 발생 예상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뒤 수술 받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의 A씨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 가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조합원님과 함께한

##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담,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1644-7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내지점</li> <li>광주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li>문흥동지점</li> </ul>
---	---	---	---	---	---	---

문흥동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